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로 독자 끄는 본의 '부비어' 서점

2000년 1억1천만마르크 매출 올려 9위로 발돋움해

이정모 | 유로코리아커뮤니케이션즈 유럽지사장

필자가 살고 있는 본은 한때 독일의 수도였지만 여전히 조용한 인구 25만의 작은 도시다. 베를린으로 수도가 이전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이곳에서 한국 배낭여행객을 만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혹 아는 이가 유럽여행 중에 본의 필자를 찾아오는 일도 매우 드문 일이다. 아마 본에는 베토벤 생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구경거리가 없는데도 또 조금 떨어진 쾰른에서 그 유명한 쾰른 성당을 얼른 눈요기 하고 다음 행선지로 떠나는 것이 일정을 잡는데 쉽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본도 생각보다는 꽤 넓은 곳이다. 헬무트 콜이 독일통일이라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세워놓은 '본 역사의 집'은 현대사 박물관의 모범이라 할 수 있고 아우구스트 마케라는 표현주의 화가의 박물관도 놓치기 아까운 곳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나칠 수 없는 방문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부비어(Bouvier)라는 서점이다. 한국 초대형 서점의 지점장도 이 서점을 구경하고 필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으니 괜한 소리는 아닐 것이다.

주제에 따라 진열장 전시, 매달 작가 낭송회도 열려
둘러보기만 해도 즐거운 부비어 서점은 시내 중심가와 대학 본관 사이에 있는 본점 외에 그 옆으로 재고도서 등을 판매하는 작은 분점 세 곳이 흩어져 있다. 1828년에 설립된 본점은 작은 가게였지만 옆 가게의 자리가 날 때마다 확장해 지금은 약 3천평방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서점으로 발전했다. 옆 가게를 구입하고

1828년에 문을 연 부비어 서점은, 처음엔 작은 가게였지만 지금은 3천평방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서점으로 발전했다.



벽을 터서 확장했기 때문에 출입구와 진열장 또한 많다. 매달 바뀌는 주제에 따라 달리 전시되는 진열장은 좋은 구경거리다. 10월의 주제는 베토벤. 베토벤 관련 도서와 CD 그리고 베토벤 박물관에서 가져온 피아노 건반 등이 전시돼 있다.

오늘은 시내 쪽 출입구로 들어갔다. 들어서자마자 에르트만출판사의 《이본 바투타 여행기》가 눈에 들어온다. 그 책이 언제부터 그 자리에 꽂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필자의 눈에 띈 까닭은 창작과비평사에서 정수일씨의 번역으로 책을 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리라. 옮긴이가 각고(刻苦) 끝에 냈다는 완역판 소식을 들으며 요약판 독일어 번역본을 보는 필자는 뿌듯함을 느낄 수밖에... 책 뒤의 서지정보를 살폈다. 정수일씨의 번역이 프랑스 판에 이은 두번째 완역이라고 들었는데, 이 책의 정보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1958년부터 1971년까지 14년에 걸쳐 완역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수일씨의 완역은 세상에서 세번째 것이 되겠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라!

서점 2층에는 본에서 제일 맛있는 카푸치노를 만들어준다는 카페가 있다. 여기서는 책과 잡지를 뽑아서 읽다가 그냥 그대로 두고 가

도 된다. 낭송회 포스터가 눈에 들어온다. 서점 2층에서는 매달 유명작가들의 낭송회가 열린다. 여기서 만난 사람으로는 《소피의 세계》를 지은 스웨덴 작가 요슈타인 가아더, 《죽지》의 이스라엘 작가 아모스 오즈 그리고 2000년 프랑스 최고의 화제작이었던 《99프랑》의 베그베데 등이 언뜻 떠오른다. 그런데 이번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기간인 10월 11일에는 이스라엘 여류작가 쩌루야 샬레브가, 그

리고 11월 13일에는 마틴 발찌의 낭송회가 있다고 한다. 지금 쩌루야 샬레브의 두 작품을 우리말로 옮기고 있는 두 번역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당

장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쩌루야 샬레브와의 인터뷰를 준비하겠다고 연락했다.

《서정주 시집》 등 한국문학도 번역 소개해

작은 도시의 결코 크지 않은 부비어 서점은 문학의 중심지로서 자리매김되는 것에 만족하는 곳만은 아니다. 부비어 서점의 2000년도 매출액은 1억1천만마르크, 우리 돈으로 660억원에 이른다. 이 규모는 독일어권에서 9위에 해당한다. 참고로 1위는 하겐에 있는 피닉스 서점으로 매출은 3억8천만마르크, 2위는 뮌헨의 후겐두벨 서점으로 3억6천만마르크 정도다. 100위는 베를린 대학 구내서점으로 850만마르크.

이 서점은 우리나라와도 적지 않은 관련이 있다. 부비어 서점에 팔려 있는 작은 출판사에서 하이델베르크대학의 조화선 박사가 번역한 《서정주 시집》과 본대학 한국어학과 구기성 교수가 번역·편찬한 《한국단편선(전3권)》을 냈기 때문이다.

독일을 여행하다가 본에서 기차를 내리시라. 그리고 시내로 조금만 걸어와 부비어 서점 2층에서 카푸치노를 마시며 서가 구경을 하시라. 아마도 편안함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